

한-독 공동 기자회견

- 인사말 -

대화가 아주 유익했습니다. 양국관계가 최고라고 표현한 슈뢰더 총리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양국관계의 역사에 관한 것도 얘기를 나눴고, 양국 교역이 균형을 갖추고 있는 가운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매우 만족스럽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방문을 계기로 산자부 장관과 정통부 장관, 많은 기업인들이 동행했습니다. 양국 경제협력에 쌍방간 투자에 관한 많은 의견이 있었고 기술협력에 있어서도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기술협력과 투자 분야에서 양국 경제협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구체적 경제협력 외에 경제개발 과정에서 우리의 모범이 되었고 실제로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통일과정이라든지 EU를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에 있어 한국과 아시아지역 미래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눴습니다. 요즘 세계화 측면에서 이뤄지는 독일 내부의 노사관계와 경제제도 개혁에 대해서도 한국은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역시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는 한국에 많은 참고가 될 것입니다. 그 밖의 얘기는 슈뢰더 총리가 얘기한 것과 다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아마 한국 팀이 독일에 오게 될 것 같습니다. 2002년에 한국이 홈에서 아주 좋은 성적을 거뒀는데, 총리께 우리 선수들이 홈처럼 따뜻하게 느끼게 해주면 독일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총리에게 얘기했습니다. 한국 월드컵 경기 때 길거리로 나와 응원한 700만 명, 붉은 악마란 응원단이 있다고 슈뢰더 총리에게 소개했습니다. 축구팀 못지않은 명물입니다. 베를린에서 우리 팀이 16강, 8강, 4강 진행되는 대로 응원단도 10만 50만 100만이 오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총리가 매우 걱정할 줄 알았는데 다 먹여주고 채워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